

펼침

열림

- 그때 그사람
- 유물사랑 이야기
- **내일을 꿈꾸며**

배움

나눔

【한국미술정보센터】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6-4
www.daljinmuseum.com

지난 2010년 12월 20일, 마포구 창전동에 문을 연 한국미술정보센터는 한국근현대미술사의 기록보관 창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자료를 자랑한다. 이 건물을 채우고 있는 약 4만 여점의 미술 전시 관련 **홍보물, 학회지, 정기간행물** 등은 한 수집가의 40년 열정의 산물이다. 이번 호에서는 미술자료수집가로 유명한 김달진 한국미술정보센터 소장님을 만나 그의 수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수집을 하게 된 동기는? 왜 미술자료였는지?

중학교 때 우표, 껌 상표, 담배 갑 등을 모으며 수집가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고나 할까? 미술자료 수집은 처음에는 여성잡지에 소개되던 서양의 명화를 한 장짜리 화보로 소개하던 코너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1972년 당시 경복궁에서 열렸던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을 관람하고 이를 계기로 서양의 명화사진만 모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 작가들에

관한 자료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술전공자는 아니었지만 가볍게 재미로 시작한 수집을 계기로 미술작품들의 세계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34살이란 나이에 학부에 입학하여 미술을 공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개관식
01 테이프커팅 모습



— 조선공예
01 전람회도록, 1934



수집방법이나 환경도 시대에 따라 변했을 것 같은데...

전에는 주로 직접 발품을 팔며 자료들을 모으려 다녔었죠. 직접 다니며 수집하는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인인 생각도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근무당시에는 우편으로 발송되어 오는 자료에만 만족할 수 없어 당시로서는 어렵사리 출장허락을 받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소평백을 들고 인사동을 돌며 자료를 수집해왔고 그 덕에 ‘금요일의 사나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청계천에 헌책방들을 뒤져서 외국에서 나온 잡지, 도록 등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발로 헌책방들이 많이 사라졌죠. 요즘에는 많이 알려진 탓에 알아서들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올드북이나 코베이 경매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내고 발원하는 김달진 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라기보다는 물건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결국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 최초의 미술잡지로 알려져 있는 『서화협회회보(1921)』를 들 수 있겠는데, 이 잡지의 원본을 처음으로 본 계기는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 근무 당시 덕수궁에서 열렸던 ‘한국 근대

미술자료’전에서였습니다. 이 회보는 1921년과 1922년 단 2회에 걸쳐서 발간되었기 때문에 원본이 매우 희귀한 상태였으며, 그 탓에 전공자들도 대부분 복사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정기간행물 전시를 위해 그 잡지를 수소문했었는데, 끝내 원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연히 코베이 경매 사이트에서 이 잡지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매에 입찰했고, 결국에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수집한 물건들이 가져다 준 즐거움 혹은 보람?

자료라는 것은 역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이종섭, 김한기, 박수근 같은 유명화가들은 화집도 많고 기존에 발간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화가들은 타계 후에 잊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년에 1850년에서 1960년까지 작가들을 모은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을 발간하게 되었죠. 또한 저희는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의 미술계 동향이나 정보 등을 「서울아트가이드」라는 무료 잡지나 미술 포털 사이트 달진닷컴(daljin.com)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의 발신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왼쪽부터)
01 조형예술, 1946
서화협회회보, 1921



개인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자료나 수집품과 500년 후 국보로 지정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물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화협회회보(1921)』도 그러하고 『조형예술(1946)』이라는 잡지도 있는데, 이 또한 창간과 동시에 폐간이 되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료입니다. 그 외에 국내 최초 원색도판인 「오지호김주경 2인 화집(1938)」, 스페인에서 발간된 「고야의 판화모음집(1917)」등도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관식 테이프커팅

무엇을 모으고 수집하곤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수집이라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개인의 취미와 즐거움으로 시작되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집한 것들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승화시켜야 거기에 진정한 수집의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수집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수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공간 확보일 것입니다. 1995년 당시 ‘삼풍백화점봉괴사건’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2층에 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마루에 책이 워낙 많이 쌓여있었으니까 집이 무너진다고 나가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다행히 지하실로 부랴부랴 책들을 옮겨서 해결을 했습니다.

